

이란의 주요 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자동차 산업

Automobile Industry



자동차 산업

차 례

I. 산업 현황 .....	210
II. 산업 구조 .....	214
III. 산업의 최근 동향 .....	217
IV. 향후 전망 .....	219
V.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224

## 자동차 산업

## 표·그림 차례

<표 I-1> 이란 5대 자동차 회사별 생산량 (2014년) .....	212
<표 I-2> 외국기업의 이란 내 자동차 생산 관련 주요 제도 (2015년 기준) .....	212
<표 I-3> 이란의 차종별 및 배기량별 자동차 관세율 (2015년 기준) .....	213
<그림 I-1> 이란의 자동차 생산량 추이 .....	211
<그림 IV-1> 이란의 자동차 총 판매량 및 생산량 전망 .....	219
<그림 IV-2>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의 승용차 판매량 전망 .....	220
<그림 IV-3> 이란의 부문별 자동차 생산량 전망 .....	221
<그림 IV-4> 이란 자동차 시장의 브랜드별 점유율 (2013~14년) ....	223



# I.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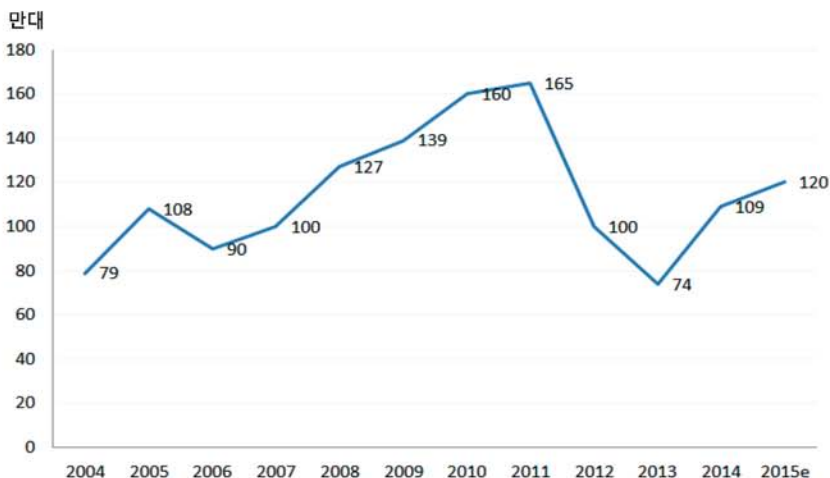
## □ 이란은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

- 이란은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2015년 약 12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세계 18위)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이란의 자동차 산업은 직·간접적으로 약 120만 명의 고용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됨.
- 이란의 자동차 산업은 1959년 생산을 시작하여 2005년에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달성하였으며, 연간 생산량은 2011년 약 165만 대까지 증가하였음(세계 13위).
  - － 그러나 서방의 경제제재가 더욱 강화된 2012년 이후 대 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 금지조치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이란 경제가 리알화 가치 하락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함에 따른 수요 감소까지 겹쳐 2013년 생산량은 74만 대로 추락하였음.
  - － 핵협상 타결로 경제제재의 잠정적 완화조치가 취해진 2014년에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109만 대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음.



&lt;그림 | -1&gt;

## 이란의 자동차 생산량 추이



자료: OICA(Organiz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Automobiles)

### □ 현지 자동차 업체에 의한 조립 생산이 대부분

- 현재 이란의 자동차 생산은 대부분 외국의 자동차 모델을 현지에서 라이선스 방식으로 조립생산(CKD: Complete Knock Down)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Iran Khodro, Saipa, Pars Khodro(Saipa의 자회사) 등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5개 자동차 회사와 1,200개 부품업체가 영업 중임.
- 경제제재 기간 동안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산 부품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급격한 품질 저하를 겪는 한편으로 완성차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임.

&lt;표 1-1&gt; 이란 5대 자동차 회사별 생산량 (2014년)

구 분	생산량(대)	시장점유율
Iran Khodro	512,524	53.4%
Saipa	249,177	15.3%
Pars Khodro	106,561	11.1%
Kerman Khodro	42,564	4.4%
Modiran Khodro	42,362	4.4%

자료: Asre-Khodro Magazine

## □ 완성차 및 부품의 수입 통제 등을 통해 국내산업 육성 노력

- 이란 정부는 1990년대 이후 탈석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중요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완성차 및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현지 합작투자와 국내 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음.
- 이란 정부는 1995~2004년까지 완성차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2005년 수입이 재개된 이후에도 완성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를 고수하였음.

&lt;표 1-2&gt; 외국기업의 이란 내 자동차 생산 관련 주요 제도 (2015년 기준)

■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또는 이란과의 합작투자 의무화
■ 생산량의 최소 30%를 정해진 기간 내에 수출
■ 외국기업들은 이란측 파트너와 함께 R&D를 수행
■ 부품의 최소 20%는 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자료: 이란 산업통상자원부

- 단, 휘발유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코자 친환경 연료 자동차의 생산 및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낮은 수준임.

<표 1-3> 이란의 차종별 및 배기량별 자동차 관세율 (2015년 기준)

구 분	2,000cc 미만	2,000cc 이상 2,500cc 이하	2,500cc 초과
일반 승용차	40%	55%	75%
10인용 이상 버스·밴	26%		
하이브리드 승용차, 버스·밴	4%		

자료: 이란 투자진흥청

## II. 산업 구조

### □ Iran Khodro : 이란 최대의 자동차 회사

- 1963년 설립된 Iran Khodro는 현재 이란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산하에 자동차 부품 관련 26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2015년 시장점유율은 약 50%로 추정됨.
- Iran Khodro는 경제제재 기간 중 부품의 수급이 어려운 외국 브랜드의 라이선스 생산보다 자체 모델 생산의 확대에 주력하였음.
  - － 자체 모델로는 Dena, Runna, Soren, Sarir, Samand, Bardo 등을 생산하고 있음.
  - － 외국 브랜드로는 프랑스 Peugeot의 405, 206, 207의 변형 모델 등을 라이선스 생산해 왔음. 제재 이전 Peugeot 405 모델의 국산화율은 80%에 달했으며, 206 모델은 Peugeot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CKD 방식으로 생산하였음.

\* Peugeot 브랜드는 경제제재 이전까지 Iran Khodro의 총 생산량의 80%를 차지하였음.

- Iran Khodro는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등지에 해외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는 물론 동유럽, CIS 등으로도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Iran Khodro는 2009년 기준 39개국에 약 5만 대의 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짐.

## □ SAIPA : 이란 제2의 자동차 회사

- 1966년 설립된 SAIPA는 이란 제2위의 자동차 회사로, 이란 제 3위의 자동차 회사인 Pars Khodro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음.
  - SAIPA와 Pars Khodro의 2015년 시장점유율은 각각 15%, 11%로 추정됨.
- 승용차 부문의 주력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Pride와 프랑스 Renault의 Logan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모델로는 Tiba 등이 있음.
  - SAIPA는 1993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Pride 모델을 조립방식(KD)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Saba, Nasim, Saipa-Pride 등의 이름으로 판매된 동 모델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란 승용차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였음.
  - SAIPA는 2005년 기아자동차와의 합작계약이 종료되면서 Pride의 현지 생산라인과 권리를 매입하여, 지금도 Saipa Saba GLXi와 Saipa Nasim DMi를 주력 모델로 자체 생산하고 있음.
- 상용차 부문은 자회사 Zamyad와 Saipa Diesel 등이 스웨덴 Volvo의 라이선스로 트럭, 버스, 밴 등을 생산하고 있음.

- SAIPA는 경제제재 해제 후 Renault, 기아자동차 등과 현지 생산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2015년 9월 Renault의 Sandero 모델의 라이선스 생산을 위한 새로운 조립 라인을 구축하였음.



## III. 산업의 최근 동향

### □ 경제제재 해제로 외국 기업들의 이란 시장 재진출 본격화

- 프랑스 PSA Peugeot-Citroën은 2016년 1월 Iran Khodro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 － 동 계약은 5년간 4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 투자, 기술 이전, 최신 모델 생산(Peugeot 208과 301),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로의 수출 등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독일 Daimler와 Iran Khodro Diesel은 2016년 1월 Mercedes Benz 트럭의 현지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회사 설립 관련 사업 의향서(LOI)에 서명하였음.
- 이탈리아 Fiat는 2015년 12월 Iran Khodro와 현지 생산법인 합작 설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외에 프랑스 Renault, 일본 Nissan, Suzuki, Matsuda, 시리아 Siamco 등이 이란 현지 생산을 재개 또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 이란 정부, 이란 자동차 기업의 완전 민영화 추진

- 이란의 Hassan Rouhani 대통령은 2016년 3월 1일 Tehran에서 열린 제3회 국제자동차산업회의에 참석하여 “이란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란의 자동차 기업들이 반드시 완전 민영화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과 제휴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란 정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주요 산업들을 국영화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조직인 IDRO를 통해 Iran Khodro와 SAIPA를 통제해 오고 있음.
- 아울리 Rouhani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자동차 수입을 제한 하면서 국내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더 이상 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밝히 자동차 수입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하였음.

## □ 이란 소비자들, 핵협상 타결 후 이란 국산차 불매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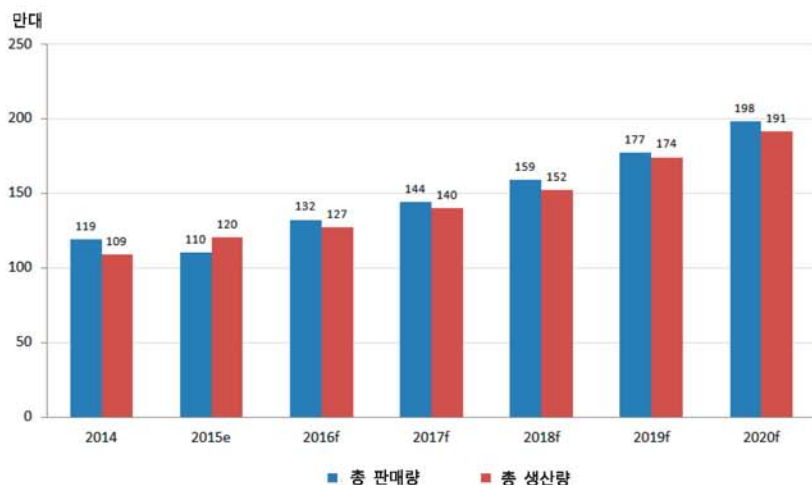
- 품질은 낮고 가격은 높은 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이란 소비자들은 2015년 7월 핵협상 타결 후 고품질 수입 자동차를 곧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Don't buy brand new car”로 불린 국산차 불매 운동을 벌인 바 있음.
- 이에 이란 정부는 2015년 8월 저금리 대출을 국산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제공기로 하였음. 대출한도 금액은 2015년 말 기준 자동차 가격의 80%인 것으로 알려짐.

## IV. 향후 전망

### □ 경제제재 해제로 판매량과 생산량은 10%대 성장 지속 전망

- 자동차 총판매량은 2016년 경제제재 해제 효과로 19.8% 증가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생산량도 2016년 11.2% 증가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1> 이란의 자동차 총 판매량 및 생산량 전망



자료: OICA, BMI

## □ 판매량 증가는 승용차에 의해 주도될 전망

- 승용차 판매량은 그동안 경제제재로 인해 억제되었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6년에 전년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의 자동차 총판매량 132만 대 중 승용차 판매는 약 86%인 11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도 인구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상승, 도로 인프라 개선 등이 신차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이어질 전망이다.
- 상용차의 경우 2016년 판매량은 약 19만 대로 전망되며, 이란 건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연평균 12.4%의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2>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의 승용차 판매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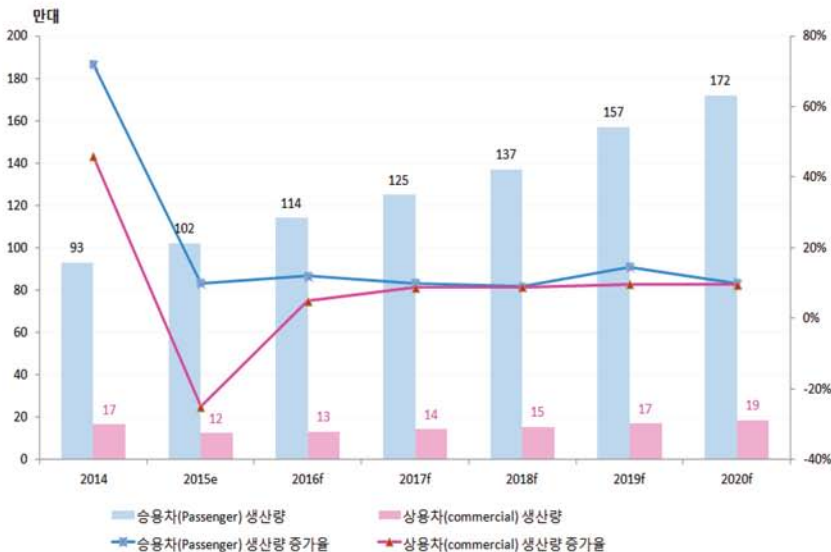


자료: BMI

## □ 기술이전 등을 조건으로 하는 합작투자에 의한 생산 증가 전망

- 해외 브랜드와 현지 자동차 기업과의 합작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합작방식은 제재 이전에 비해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방식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해외 브랜드들은 특히 승용차 부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승용차 생산량은 2016년에는 전년대비 12% 증가하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1%의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상용차 생산량은 2016년에는 전년대비 5% 증가하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8.4%의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3> 이란의 부문별 자동차 생산량 전망



자료: BMI



## □ Peugeot 등 제재 이전 선호 브랜드가 가장 유리한 입장

- 프랑스 PSA Peugeot-Citroën은 경제제재 이전 오랫동안 이란 시장을 지배했던 Peugeot 브랜드를 통해 경제제재 해제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 Peugeot는 경제제재 기간 동안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상당한 재무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자마자 Iran Khodro와 거래를 재개하였음.
- 핵협상에 따라 경제제재 일부 완화가 시행된 2014년 Peugeot의 시장 점유율은 Iran Khodro가 제재 기간 중에도 Peugeot 모델을 생산한 데 힘입어 전년 대비 35%나 증가하였음.
- 이 밖에 과거 이란 시장에 진출했던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자동차, 일본 Toyota 등도 브랜드 인지도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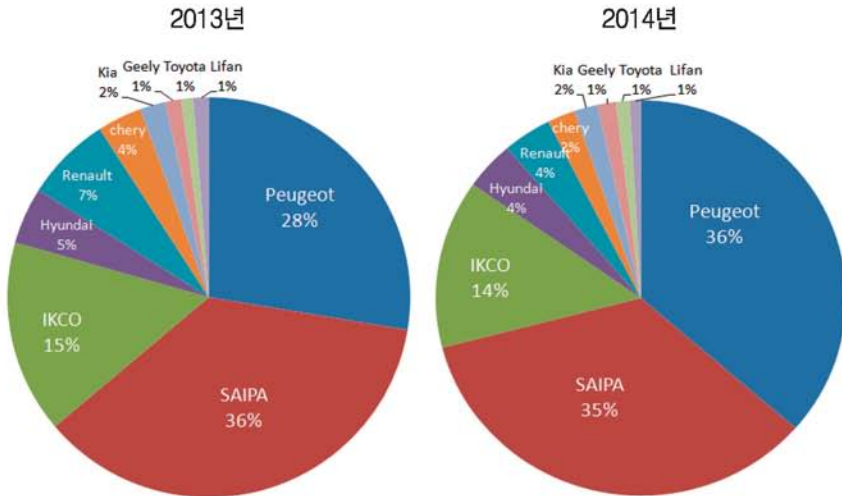
## □ 경제제재 기간 중 상승했던 중국의 점유율은 하락할 전망

-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대 이란 경제제재를 기회로 이란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Chery와 Lifan 등 저렴한 가격의 브랜드들은 이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왔음.
- 그러나 이들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경제제재가 부분 완화된 2014년도에 프랑스, 한국, 일본 브랜드들에 밀려 하락하였음.
- 중국 기업들의 이란 시장 점유율 하락세는 경제제재 해제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 기업들도 이란 자동차 시장에 신규 진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림 IV-4> 이란 자동차 시장의 브랜드별 점유율 (2013~14년)



자료: BMI

## V.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 등이 필수

○ 우리나라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과거 이란 시장에서 축적한 브랜드 인지도와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이란 자동차 시장 재진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6년 3월 기아자동차는 제재 이전 체결되어 있던 이란 SAIPA 앞 완전조립(CKD) 수출계약의 잔존기간이 남아 있어 그에 따라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대자동차도 이란 시장 진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대 이란 경제제재 이전 연간 2만 대 내외의 차량을 이란으로 수출하였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현지 업체의 조립생산(KD)을 위한 수출이었음.

○ 그러나 최근 이란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기업의 재무적 투자, 기술이전, 주변국가로의 수출 등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합작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장기적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 있음.

## □ 고급 모델에서 저가 모델까지 제품 스펙트럼의 다양화 필요

- 이란 자동차 시장은 고급 제품과 저가 제품의 소비계층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략해야 할 것임.
  - － 이란의 고소득층은 Benz, BMW 등 고가의 유럽산 대형 차량을 선호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오랜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가격대 성능비가 높은 실속형 차량을 선호함.
  - － 수도인 Tehran의 경우 비탈길이 많아 소비자의 대부분이 SUV를 선호하며,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타 지역은 저가 중국산 자동차의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역에 따라 차량의 선호도 다름.
- 2015년 말 KOTRA가 이란 바이어 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개사 모두 한국산 자동차가 가격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함.
  - － 그러나 유럽 기업들의 본격적인 이란 시장 재진출에 따라, 가격 인하를 조건부로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지속하겠다는 의견도 다수(31개사) 접수되었음.

## □ 하이브리드 차종 등 친환경 모델의 수출도 모색

-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 및 이용을 장려하는 이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 이란 정부는 2015년 1월 Diyar Khodro가 이란 최초로 선보인 전기자동차 Sabrina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시에 배치할 것을 검토 중이며, Iran Khodro도 3년 내 전기자동차 모델을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대 이란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아직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인 이란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이란의 주요 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IT기기 산업

IT Electronics Industry



## IT기기 산업

## 차 례

I. 산업 현황 .....	232
II. 산업 구조 .....	240
III. 산업의 최근 동향 .....	244
IV. 향후 전망 .....	247
V.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257

## IT기기 산업

## 표·그림 차례

<표 V-1> 우리나라의 대 이란 IT기기 수출 추이 (2011~15년) .....	257
<표 V-2> 우리나라의 대 이란 휴대전화 단말기 수출 품목별 추이 (2011~15년) .....	258
<그림 I-1> 이란의 2015년 IT기기 품목별 판매액 .....	233
<그림 I-2> 중동 지역 국가들의 PC 보급률 (2013년) .....	234
<그림 II-1> 이란 내 브라우징 트래픽 점유율과 전년대비 증가율(2016.1월) .....	243
<그림 III-1> 이란 컴퓨터 시장의 품목별 판매대수 변동 .....	246
<그림 IV-1> 이란 가구의 소득수준별 구성 전망 (2016~20년) .....	248
<그림 IV-2> 이란의 IT기기 수요 추이 및 전망 (2014~20년) .....	249
<그림 IV-3> 이란의 컴퓨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2014~20년) .....	251
<그림 IV-4> 이란의 컴퓨터 판매대수 추이 및 전망 (2014~20년) .....	251
<그림 IV-5> 이란의 AV기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253
<그림 IV-6> 이란의 비디오 기기 판매대수 추이 및 전망 .....	254
<그림 IV-7> 이란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	255
<그림 IV-8> 이란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수 추이 및 전망 .....	256

# I. 산업 현황

## □ 이란 IT기기 시장, 경제제재 해제로 2017년부터 성장 기대

- 이란의 IT기기 시장은 경제제재 해제와 그로 인한 경제환경 개선에 힘입어 2017년부터 성장이 기대됨.
  -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정식 수입품의 공식 유통망을 통한 판매는 IT기기의 가격 하락과 그로 인한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IT기기의 내수소비 성장이 과거의 추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노트북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주요 IT기기의 보급률은 경제제재의 여파로 인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성장의 여지가 매우 큼.
- 다만, 핵협상의 Snapback 조항(이란의 협상내용 위반시 경제제재 자동 재개) 등의 정치적 위험,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해, 일부 품목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비공식적 유통망을 통해 IT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습성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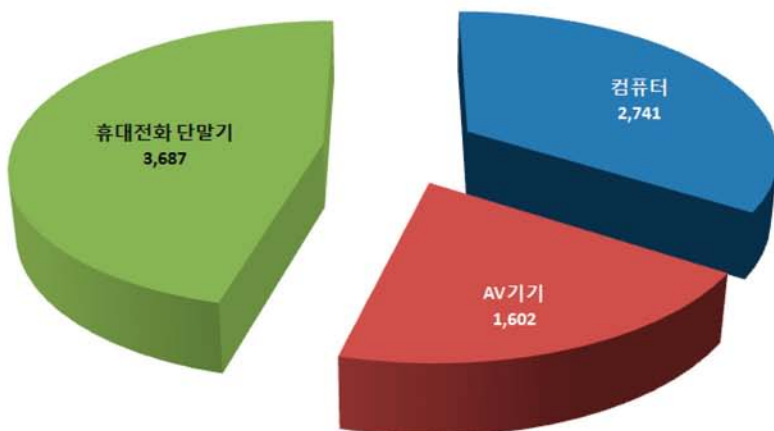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IT기기를 컴퓨터(데스크톱 PC, 노트북 PC, 태블릿 PC), AV기기(LCD/LED TV, 오디오, 디지털카메라 등), 휴대전화 단말기(일반 휴대폰, 스마트폰)로 분류하였음.

#### □ 2015년 품목별 매출 : 휴대전화 단말기가 약 46%를 점유

- 컴퓨터는 2015년에 전년대비 0.9% 감소한 27.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IT기기 총소비의 34.1%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 AV기기는 2015년에 전년대비 1.15 감소한 16.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IT기기 총소비의 20.0%를 차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는 2015년에 전년대비 0.4% 증가한 36.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IT기기 총소비의 45.9%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 -1> 이란의 2015년 IT기기 품목별 판매액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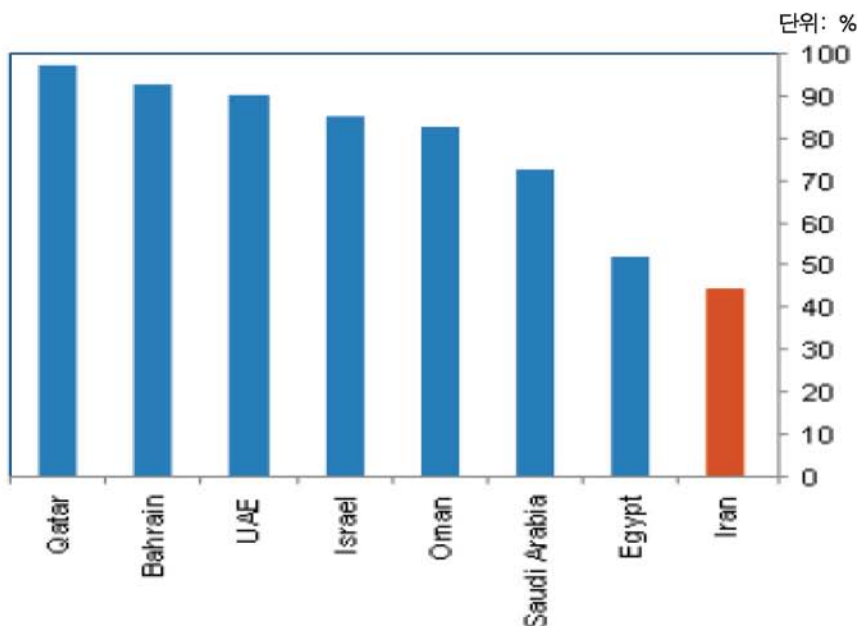


자료: BMI

## □ 이란 시장의 긍정적 요소: 높은 성장잠재력

- 이란 국민의 소득 포트폴리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IT기기 보급률은 이란의 IT기기 시장이 큰 성장잠재력과 기회를 지녔음을 암시하고 있음.
- 이란의 2013년 기준 PC 보급률은 여타 중동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40%대 중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그나마도 현지 조립 데스크톱 PC에 편중되어 있음.
- 경제제재로 인한 높은 가격과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2015년 이란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36%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그림 | -2> 중동 지역 국가들의 PC 보급률 (2013년)



자료: BMI



## □ 이란 시장의 부정적 요소: 밀수와 암시장의 번성 등

- 이란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PC, TV에 대해 국제적 기준은 물론 중동 지역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수입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는 내수 판매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밀수와 암시장의 번성을 초래하였음.
- 부패, 관료주의, 혈연주의와 경제개방에 대한 보수파의 저항이 만연함에 따라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의 붕괴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저유가 추세는 정부지출과 민간소비의 성장을 저해할 전망이다. 원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에 직면한 이란 정부는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주는 수입관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적음.

## □ 소규모 유통업자들과 아시아 기업들이 IT기기 시장을 좌우

- 경제제재로 인해 시장과 소매 유통망의 발달이 저해됨에 따라, 현지의 소규모 유통업자들은 이란의 IT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미국·유럽 기업들이 경제제재로 인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LG전자, 삼성전자, Acer, Sony, Toshiba 등 아시아 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제제기간 중에도 Hewlett Packard, Apple 등 미국 기업들의 제품은 이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었음.

- 미국 정부의 primary sanction(미국의 시민·기업·기관의 대 이란 거래 금지)과 대 이란 거래에서의 미 달러화 사용 금지조치 유지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의 사업 확장에 나서지 않고 있음.

#### □ 밀수의 근원은 이란 정부의 높은 수입관세율

- 이란 정부는 2006년 국내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들의 이란 현지 생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수입 휴대전화 단말기의 관세율을 4%에서 60%로 급격히 높였음.
-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들이 여전히 이란을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 지역으로 간주하여 현지 생산 투자를 꺼렸으며, 관세율 대폭 인상은 결국 밀수의 성행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 이에 이란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밀수를 줄이기 위하여 관세율을 2009년 25%, 2011년 10%로 점차 낮추었으나, 관세율 인하가 밀수 감소에 명백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하였음.

#### □ 휴대전화 단말기의 현지 생산은 지지부진한 수준

- 이란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이 외국 기업들에 지배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단말기의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음. 그러나 현재 8,000만 대 이상의 밀수된 휴대전화 단말기가 이란 현지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란 정부가 생산권을 부여한 11개의 기업들은 2014년 150만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5년 1분기 말에는 오직 2개 기업만이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현지 기업들이 생산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이란 수요의 10~15%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다층적이고 파편화된 유통경로가 유통망 발달을 저해

- 이란 IT기기 시장의 유통경로는 여타 중동 국가들에 비해 더 길고 더 많은 단계를 거치고 있음.
- 대규모 재판매업자(reseller)는 중간 유통업자(sub-distributors)에게 판매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은 더 작은 규모로 소매점들에게 판매함.
- 이들 소매점들은 다시 일부 중대형 유통업자들과 더불어 7,000여 개의 하위 소매점들에게 판매함.
- 이처럼 소규모 소매업자들의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시장 상황은 유통망 발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근 국가들은 대형 양판점, 전자기기 전문점 등에서의 판매량이 IT기기 전체 판매량의 40-60%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이란에서도 Sharaff 등 유력 소매업체들과 연관된 대형 마트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수크(souk, 중동 지역의 시장)가 이란 IT기기 유통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

- 다층적이고 파편화된 유통망은 소비자에게는 높은 최종가격을, 소매업자와 유통업자에게는 마진의 축소를 의미함. 그러나 다층적인 유통망은 동시에 경제제재 기간 중에도 이란 소비자들이 외국의 IT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외국 브랜드의 이란 현지 유통업체로는 Samsung Electronics (삼성전자), Redington Gulf(HP), Pars(Sony), Maadiran Group(LG전자), Parcon Electronics(동부대우전자) 등이 있음.

#### □ 경제제재로 인한 grey market 발달과 밀수의 성행

- 이란의 IT기기 시장은 경제제재로 인해 우회수입 내지 밀수를 통한 이른바 grey market이 발달하는 등 여타 국가들의 가전제품 시장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비공식적인 Apple 제품 판매점들이 수도 Tehran에서 활발히 영업 중임.
- 상당한 물량이 이란의 3대 가전제품 유통업체들인 Hyperstar, Refah, Shahrvand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우회수입 또는 밀수된 물량이 개별 소상공인들의 소규모 판매점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소규모 판매점들은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직수입되거나, 두바이 또는 터키를 경유하는 우회수입 또는 밀수를 통해 유입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유통업자들은 두바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대부분 이란의 Kish, Kashan, Shabhar 등지에 소재한 자유무역지역(FTZ)으로 반입한 다음, 조직화된 유통망을 통해 이란 역내로 반입함.
  - 두바이의 재수출은 이란의 IT기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란 내 판매 중인 외국 IT기기의 최대 90%가 두바이의 재수출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됨.
-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불법 수입품 시장의 축소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A/S 미보장 등의 이유로 많은 소비자들이 정식 수입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밀수시장 규모는 점차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II. 산업 구조

### □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

- 이란의 IT기기 시장은 서방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일부 이란 현지 기업들도 생산을 담당하고 있음.
- 경제제재로 Hewlett Packard, Apple 등 미국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동아시아 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왔음.

### □ 국내 생산업체들의 생산기반 확대 노력의 성과는 제한적

- LG전자 제품의 이란 내 유통을 담당하는 Maadiran Group은 2010년 Sharp와 합작으로 LCD TV 조립공장을 설립하는 한편, 자사 브랜드 제품(X-Vision) 생산도 병행하고 있음.
- Pars Electric Manufacturing은 이란의 가장 오래된 전자제품 제조기업의 하나이며, Iran Electronics Industries는 벨기에 Sagem사와의 라이선스 계약하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한 바 있음.



- 이란의 전자제품 국내 생산 발전의 2대 요소는 ①정부의 국내 생산 장려와 ②고관세율로 인한 투자유치임.
  - 이란 정부는 상당한 국내수요가 존재하는 제품들, 특히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각종 조치를 취해 왔음.
  - 이란 시장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한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Panasonic 등의 아시아 기업들이 높은 관세율을 피하고자 이란에 조립생산 공장을 설립해 왔음.
- 그럼에도 고율의 수입관세와 이로 인한 IT기기(특히 휴대전화 단말기)의 밀수 증가로 인해, IT기기의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정부 정책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컴퓨터 : 현지 조립업체들의 데스크톱 PC가 시장을 주도

- 이란의 컴퓨터 시장은 현재까지 데스크톱 PC가 보급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경제제재로 인해 현지 조립업체들이 생산하는 데스크톱 PC에 공급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온 결과임.
- 그러나 현지 조립업체들의 기술력으로는 생산에 한계가 있는 노트북 PC와 태블릿 PC의 빠른 시장점유율 상승속도를 감안할 때, 이란의 컴퓨터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외국 브랜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 이란의 컴퓨터 판매실적은 데스크톱 PC 118.5만 대(전년대비 8.8% 감소), 노트북 PC 174.8만 대(전년대비 0.3% 증가) 및 태블릿 PC 50.1만 대(전년대비 44.8% 증가)로 노트북 PC가 이미 데스크톱 PC를 앞지르고 있음.

## □ AV기기: 삼성전자 등 외국 브랜드들이 시장을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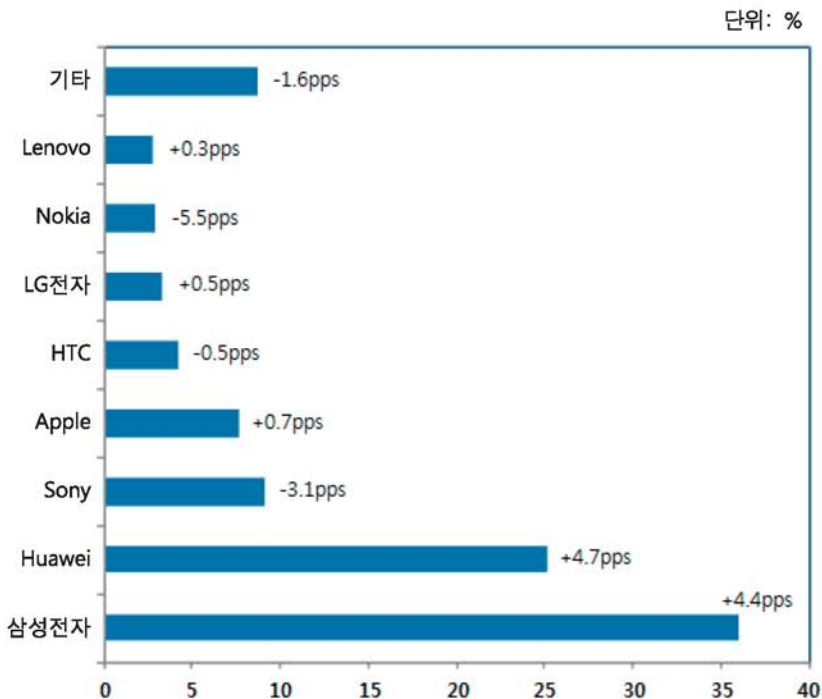
- 이란의 AV기기 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Sharp, Sony, Toshiba 등의 외국 브랜드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란 국내 기업으로는 Maadiran Group이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생산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생산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
-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플라즈마/LCD TV, LCD 모니터, 마이크로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 DVD 녹화장치를 포괄하는 상위 제품군의 범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해 오고 있음.
  - 삼성전자는 이란에서 제품 현지화와 마케팅은 물론 LED TV의 얇은 두께를 강조하는 'silk carpet' 캠페인과 같은 브랜드 구축에도 성공하며 경쟁업체들을 월등히 앞서고 있음.

## □ 휴대전화 단말기: 스마트폰 보급률의 상승 추세

- Nokia는 이란 시장에서 60% 안팎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제1의 브랜드로 군림해왔으나,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으로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최근에는 Huawei 등의 업체들에게까지 밀려나고 있음.
- Statcounter의 집계에 의하면, Nokia의 2016년 1월 이란 내 브라우징 트래픽(browsing traffic, 이동통신 서비스의 온라인 접속량) 점유율은 전년대비 5.5%p 하락한 2.9%로 떨어졌음.

- 삼성전자는 2016년 1월 이란 내 브라우징 트래픽 점유율 36.1%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였음. 2위인 Huawei는 삼성전자에 10% 포인트 이상 뒤쳐져 있으나, 2016년 1월까지 12개월간 브라우징 트래픽 점유율이 4.7% 포인트 증가하였음.
- 이란 국내 생산자의 경우, Maadiran Group은 2007년 LG전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란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생산을 시작하였음.

<그림 II-1> 이란 내 브라우징 트래픽 점유율과 전년대비 증가율 (2016.1월)



자료: Statcounter

### Ⅲ. 산업의 최근 동향

#### □ 리알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 인상으로 시장 성장속도 제한

- 이란 리알화는 2016년에 미 달러에 대하여 전년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이는 IT기기의 수입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IT기기 소비 성장률의 위축으로 이어져, 2016년 이란의 IT기기 판매액은 전년대비 0.9% 성장한 81억 달러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 EIU는 2016년 3월 미 달러에 대한 이란 리알화의 연평균 환율을 2015년 29,011.49로 추정하는 한편, 2016년에는 31,187.40으로 (즉 리알화의 평가절하를) 전망하였음.
- 경제제재 해제는 이란 시장에서 IT기기의 공급 증가와 시장의 경쟁 격화를 불러올 것이나, 그 효과는 즉각적이 아닌 중기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 이란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유통망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외국의 공급자들은 Snapback 조항으로 인한 이란의 정치적 위험에 유의하고 있음. 특히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유통망의 형성 전까지는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제한이 있을 것임.

## □ 이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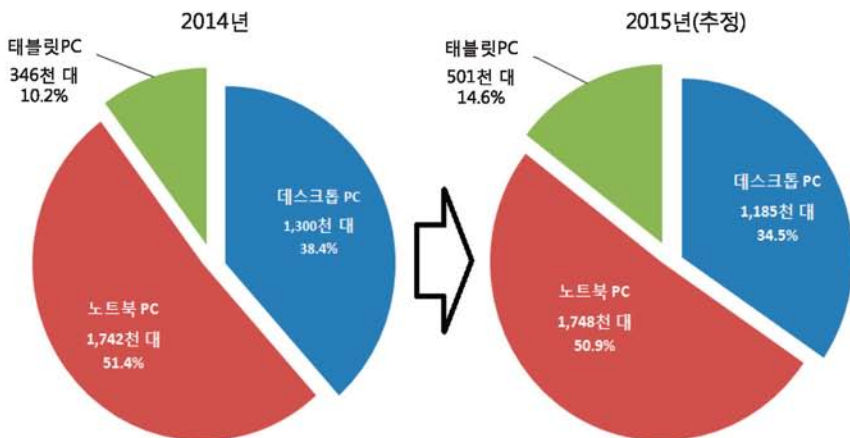
- 경제제재의 결과 이란 IT기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소비 패턴도 시장의 빠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 오랜 경제제재로 인해 이란 소비자들은 비공식적 소매상을 이용하고, 해외(특히 두바이, 카타르 등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비공식적 수입품을 구입하는 것에 익숙해진 상황임.
- 아울러 정식으로 수입되는 IT기기에 대한 이란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란 소비자들은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이는 공식적 판매 채널을 통해 집계된 이란의 1인당 IT기기 소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에 대한 설명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음.

## □ 컴퓨터 시장은 노트북 PC와 태블릿 PC로 중심 이동 중

- 이란 컴퓨터 시장의 중심은 그동안 데스크톱 PC가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노트북 PC와 태블릿 PC로 이동하고 있음.
- 품목별 판매대수 비율은 2014년 데스크톱 PC 38.4%, 노트북 PC 51.4%, 태블릿 PC 10.2%에서 2015년 데스크톱 PC 34.5%, 노트북 PC 50.9%, 태블릿 PC 14.6%로 변화하였음.



&lt;그림 III-1&gt; 이란 컴퓨터 시장의 품목별 판매대수 변동



자료: BMI

#### □ 경제제재 해제 후 새로운 유통망 구축을 위한 노력 가시화

- 최근 들어 이란 정부 소유의 3개 대형 소매업체들인 Refah, Ekta, Shahrvand는 IT기기의 공급물량 및 공급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기업들은 이란 현지의 유통업자들과 협력하여 그들만의 소매 유통망을 이란 시장에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두바이의 소매유통기업들은 이란 소비자들이 미국산 완성품 및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왔으며, 경제제재 해제 및 소비 패턴의 변화에 맞추어 이란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고 있음.
  - 전자기기 소매유통기업인 Emax는 이란 시장에서의 직접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브랜드인 Al Maya Group 역시 이란 시장에서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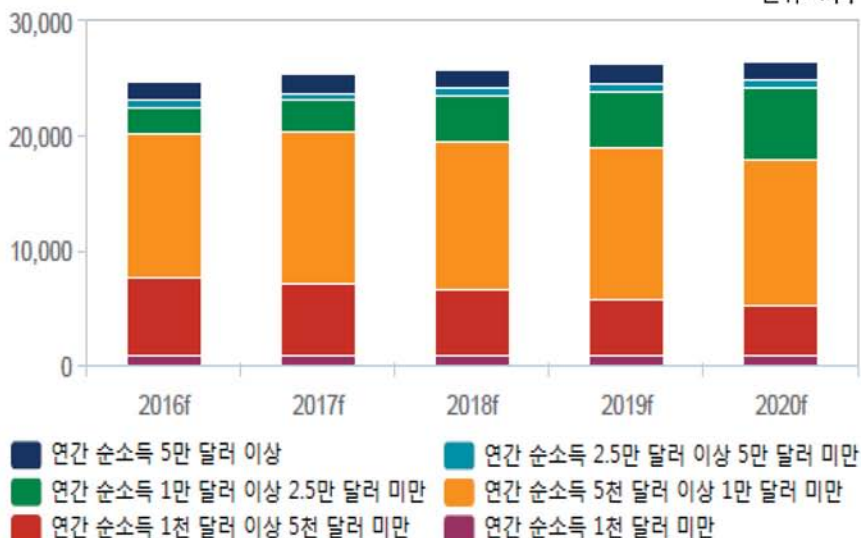
## IV. 향후 전망

### □ 이란 IT기기 시장, 2016~20년 중 4.8%의 CAGR 시현 전망

- BMI는 이란의 IT기기 시장이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가구 소득수준 상승에 힘입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평균 4.8%의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을 시현하여 2020년 시장규모가 10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BMI의 추정에 의하면, 2016년 연소득 5,000달러 미만의 이란 가구는 이란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할 전망이며, 국제적으로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1만 달러 이상의 이란 가구는 이란 전체 가구의 19%를 차지할 전망이다.
- 아울러 경제제재 해제로 2017년부터 경제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어, 2019년까지 약 380만 가구가 연소득 1만~2.5만 달러 그룹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가구당 평균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란의 IT기기 수요는 경제제재 이전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lt;그림 IV-1&gt; 이란 가구의 소득수준별 구성 전망 (2016~20년)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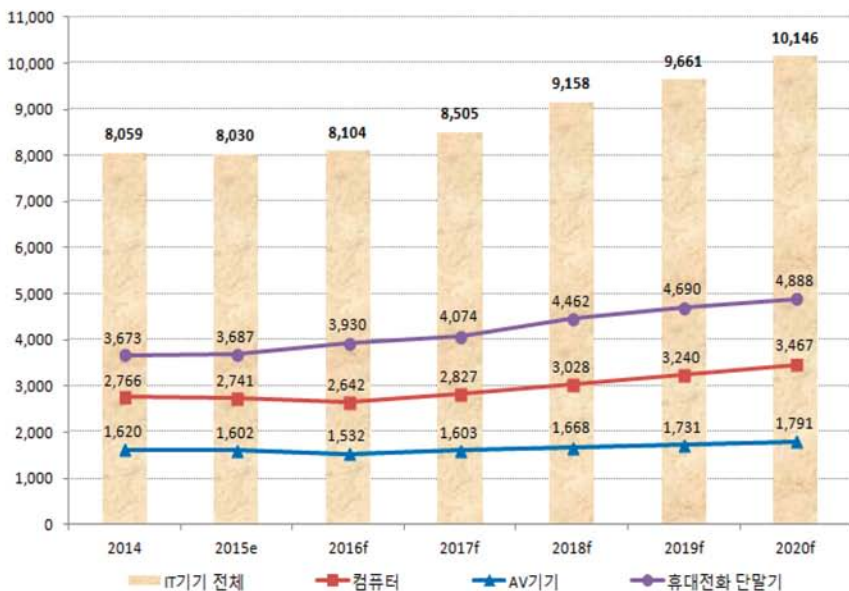


자료: BMI, 이란 통계청

-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이란 소비자들이 미국 브랜드를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에 접근하기 쉬워졌으며, 이는 이란 IT기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지배력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 Siemens, Philips 등 유럽 기업들의 이란 시장 재진출과 아울러 Huawei, Lenovo 등 중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증대 노력으로 시장이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을 띌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많은 이란 소비자들이 특정 소매업자, 해외 혹은 암시장을 통해 iPhone을 위시한 서방의 IT기기들을 입수해 왔으나, 공식 유통망의 설립은 그러한 기기들의 가격을 낮출 것이며 따라서 더욱 큰 수요를 창출할 전망이다.

&lt;그림 IV-2&gt; 이란의 IT기기 수요 추이 및 전망 (2014~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MI

## □ 컴퓨터: 노트북 PC와 태블릿 PC 중심으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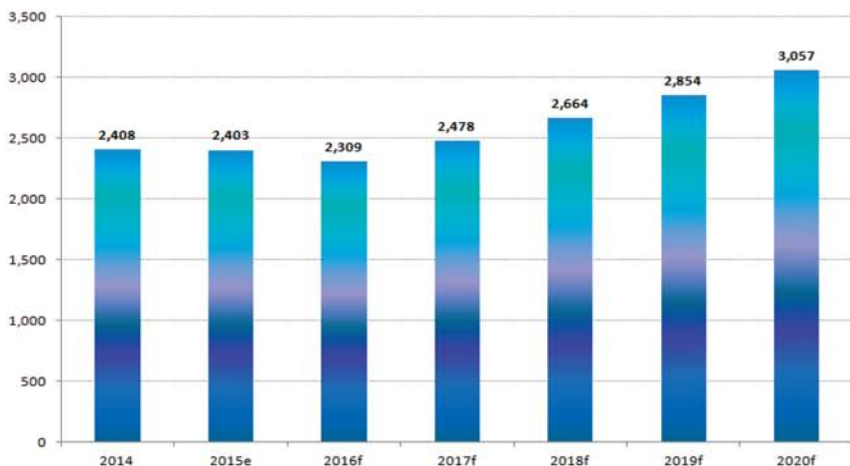
○ 컴퓨터 시장의 규모는 2016년 26억 달러에서 2020년 35억 달러로 성장하며 2016~20년 기간 중 IT기기 총소비액의 약 1/3을 계속 차지하여 동 기간 중 4.8%의 CAGR을 시현할 전망이다. 특히 노트북 PC와 태블릿 PC의 소비가 높은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 2020년 판매대수는 데스크톱 PC 96.7만 대(2015년 대비 18.4% 감소), 노트북 PC 239.5만 대(2015년 대비 37.0% 증가) 및 태블릿 PC 178.4만 대(2015년 대비 256.0% 증가)로 전망됨.

- 노트북 PC는 이미 연간 판매대수에서 데스크톱 PC를 앞지르고 있으며, 데스크톱 PC : 노트북 PC : 태블릿 PC의 연간 판매대수 비율은 2015년 34.5 : 50.9 : 14.6에서 2020년에는 18.8 : 46.5 : 34.7로 현저히 변화될 전망이다.
- 태블릿 PC의 2016~20년 기간 중 CAGR은 28.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2016년까지 태블릿 PC 시장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결과임.
- 태블릿 PC는 그동안 경제제재에 따른 수입 제한으로 컴퓨터 품목 중 보급이 가장 많이 억제되었음.
- 한편, 2016년 리알화의 미 달러 대비 평가절하가 예상되며, 이는 수입 IT기기에 대한 이란 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2016년의 이란 컴퓨터 시장은 전년대비 매출액의 3.9% 감소 및 판매대수의 0.8%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17년부터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경제성장 본격화에 힘입어 일반 사용자 부문은 물론 정부 부문과 기업 부문에서도 컴퓨터 수요가 증가하고, 아울러 시장에서의 공급 및 경쟁 증가는 컴퓨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그림 IV-3> 이란의 컴퓨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2014~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MI

<그림 IV-4> 이란의 컴퓨터 판매대수 추이 및 전망 (2014~2020년)

단위: 천 대



자료: BMI



## □ AV기기 : LED/LCD TV의 수요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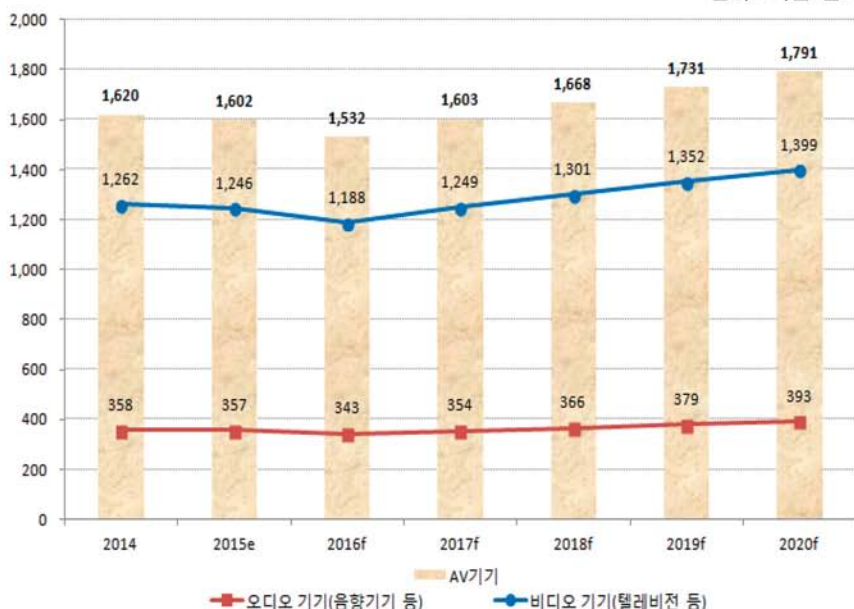
- AV기기 시장의 규모는 2016년 15억 달러에서 2020년 18억 달러로 성장하여 2016~20년 기간 중 2.3%의 CAGR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AV기기가 IT기기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0.0%에서 2020년에는 17.7%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 판매대수는 디지털카메라 15.8만 대(2015년 대비 33.9% 감소) 및 LED/LCD TV 87.7만 대(2015년 대비 17.9%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리알화의 미 달러 대비 평가절하 예상은 컴퓨터 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V기기 시장에서도 수입제품에 대한 이란 가격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2016년의 이란 AV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매출액의 4.4%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됨.
  - 다기능 스마트폰 보급률의 상승은 디지털카메라 수요의 잠식을 가져올 것이며, 기존 TV 시장의 포화 상태 및 기업들 간의 가격 경쟁 심화는 기업들의 수익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 그러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7년부터는 소비자 구매력의 증대와 시장 접근성의 개선이 특히 LED/LCD TV 보급률의 상승을 전인할 전망이다.
  - 현재 이란은 디지털 TV 방송으로 이동 중이며, 따라서 LED/LCD TV 시장은 디지털 TV 신규수요로 2016~20년 기간 중 3.3%의 CAGR를 시현하며 2020년 판매대수가 87.7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 반면,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의 상승으로 (스마트폰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를 대체) 2016~20년 기간 중 -7.9%의 CAGR를 시현하며 2020년 판매대수가 2015년 대비 33.9% 감소한 15.8만 대에 그치는 위축을 경험할 전망이다.
- 오디오 기기의 판매는 2016년 3.4억 달러에서 2020년 3.9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여 2016~20년 기간 중 CAGR이 1.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홈 시어터(home theater) 시스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5> 이란의 AV기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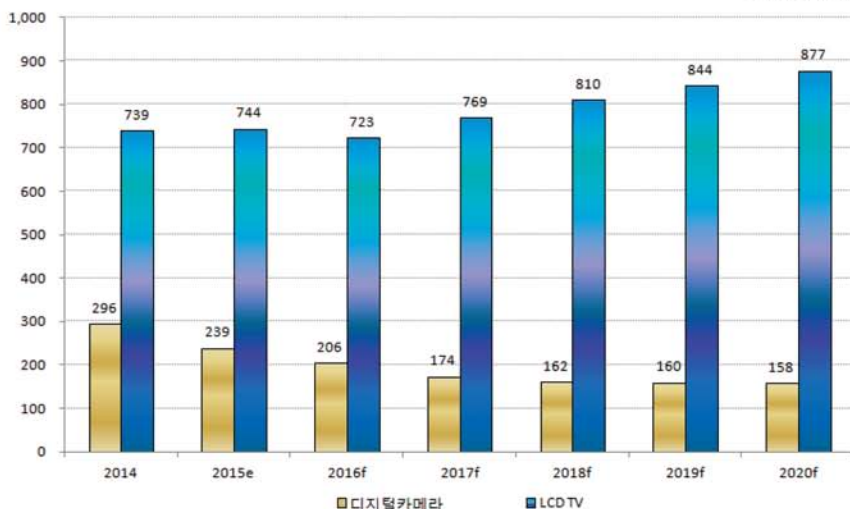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MI

&lt;그림 IV-6&gt; 이란의 비디오 기기 판매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천 대



자료: BMI

#### □ 휴대전화 단말기: 2020년 IT기기 시장의 절반을 점유할 전망

-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 규모는 2016년 39억 달러에서 2020년 49억 달러로 성장하며 2016~20년 기간 중 5.8%의 CAGR을 시현하여, IT기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까지 약 5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판매대수는 3,622.6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스마트폰이 1,776.3만 대로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2015년 기준 16세 이상 성인의 36%로 추정)과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공급물량 확대가 맞물려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 스마트폰 판매액은 2015년 23.5억 달러에서 2020년 35.0억 달러, 판매대수는 2015년 600만 대에서 2020년 1,776.3만 대로 성장하여 2016~20년 기간 중 각각 16.0% 및 24.2%의 높은 CAGR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젊은층을 중심으로 기존의 2G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함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스마트폰 가격이 수입 재개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하락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전체 판매액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IV-7> 이란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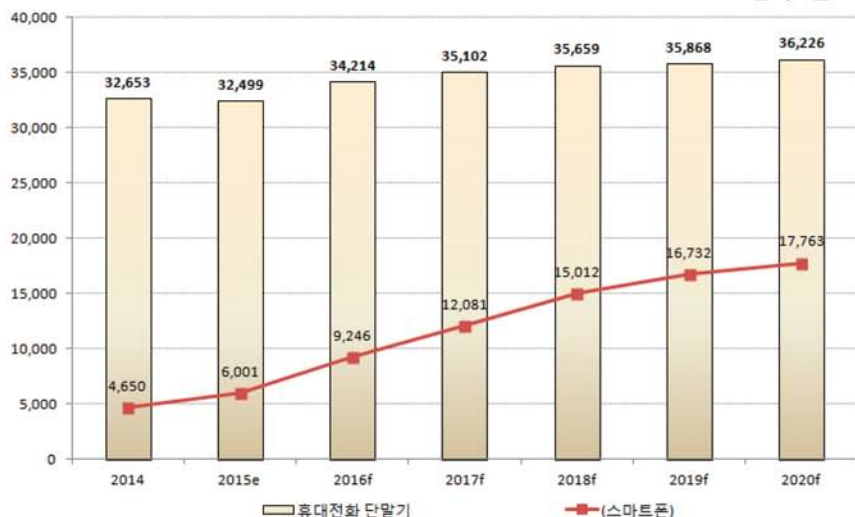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MI

&lt;그림 IV-8&gt; 이란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천 대



자료: BMI

## V.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 TV 및 스마트폰이 대 이란 IT기기 수출의 대부분을 점유

- 우리나라의 대 이란 IT기기 수출은 텔레비전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휴대전화 단말기도 20%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동 2개 품목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V-1> 우리나라의 대 이란 IT기기 수출 추이 (2011~15년)

단위: 천 달러

품목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컴퓨터(노트북, 태블릿)	864	762	472	3,565	581
컴퓨터(데스크톱)	178	195	940	224	18
휴대전화 단말기	3,532	12,173	54,601	114,189	83,386
오디오 기기	197	975	12	161	0
영상기록용/재생용 기기	3,648	2,511	2,967	3,288	2,839
디지털카메라	28	3,271	871	126	0
캠코더	0	558	208	6	0
라디오 수신기	2,837	9,196	0	210	0
텔레비전	15,732	129,954	395,760	321,815	293,369
총 합계	27,016	159,595	455,831	443,584	380,193

자료: 한국무역협회

&lt;표 V-2&gt; 우리나라의 대 이란 휴대전화 단말기 수출 품목별 추이(2011~15년)

단위: 천 달러

품목명	2011	2012	2013	2014	2015
TDMA 비동기식	3,532	12,172	54,549	91,244	57,798
CDMA 동기식	2	1	44	0	1,182
3G 스마트폰	0	0	2	21,608	24,135
LTE 4G 스마트폰	0	0	6	1,337	271
총 합계	3,534	12,173	54,601	114,189	83,386

\* 상기 세부 품목들은 모두 DMB 수신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기종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목별 수출은 2013년까지는 피쳐폰이 거의 전부였으나, 2013년부터 3G 스마트폰과 LTE 4G 스마트폰이 수출을 개시하였음.

— 스마트폰이 휴대전화 단말기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0.1%, 2015년 29.3%를 기록하였음.

#### □ 이원화된 이란 시장에서는 이원화된 진출전략 필요

○ IT기기를 위시한 이란 소비재 시장의 특징으로는 ①오랜 경제 제재로 인해 고급품을 선호하는 일부 상류층과 저가품을 선호하는 다수의 서민층으로 시장이 양분된 점, ②신기술과 유행에 민감한 젊은층 인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꼽을 수 있음.

○ 우리 기업들은 경제제재 기간 동안 이란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의 철수를 기회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왔으며, 고급품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였음.



- 다만, 전통적으로 이란 시장을 지배해온 유럽 기업들이 경제제재 해제로 복귀하면 고급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우려됨.
- 따라서 프리미엄 제품의 수출에 주력하여 고급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중저가품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서 일정 수준의 성능과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수출 및 현지 생산하는 전략이 필요함.
- 프리미엄 제품은 수출에 주력하는 한편, 중저가품은 직접투자를 통한 이란 현지 조립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현지 투자를 강조하는 이란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이란의 주요 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광업

Mining Industry



광업

차례

I. 산업 현황 .....	264
II. 산업 구조 .....	274
III. 산업의 최근 동향 .....	276
IV. 주요 개발계획 .....	281
V. 향후 전망 .....	284
VI.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288

## 광업

## 표·그림 차례

<표Ⅰ-1> 세계 비에너지 광물 생산량 국가별 순위 .....	266
<표Ⅰ-2> 이란의 철 및 철합금 생산 추이 (2009~13년) .....	266
<표Ⅰ-3> 이란의 비철금속 생산 추이 (2009~13년) .....	267
<표Ⅰ-4> 이란의 귀금속 생산 추이 (2009~13년) .....	267
<표Ⅰ-5> 이란의 산업용 비금속광물 생산 추이 (2009~13년) .....	268
<표Ⅰ-6> 이란의 석탄 생산 추이 (2009~13년) .....	268
<표Ⅲ-1> IMIDRO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14개 주요 프로젝트 .....	277
<표Ⅲ-2> IMIDRO의 2015/16회계연도 주요 프로젝트 계획 .....	279
<표Ⅳ-1> IMIDRO의 석탄 생산능력 증대 계획 .....	283
<표Ⅴ-1> 전 세계 및 이란의 철광석 생산량 추이와 전망 (2014~18년) .....	286
<그림Ⅰ-1> 이란의 주요 금속광물 분포도 .....	265
<그림Ⅰ-2> 이란의 현재 상태별 광산 현황 .....	269
<그림Ⅰ-3> 이란의 철광석 및 철강 생산량 추이 (1995~2014년) .....	270
<그림Ⅴ-1> 중동 지역의 비석유 광업 부문 가치총액 추정 .....	285
<그림Ⅴ-2> 이란의 광업 부문 가치총액 전망 .....	285
<그림Ⅴ-3> 이란의 광산물(금속제품) 소비 관련 요인 전망 (2014~20년) .....	286



# I. 산업 현황

## □ 풍부한 성장잠재력에 비해 투자는 최근까지 부진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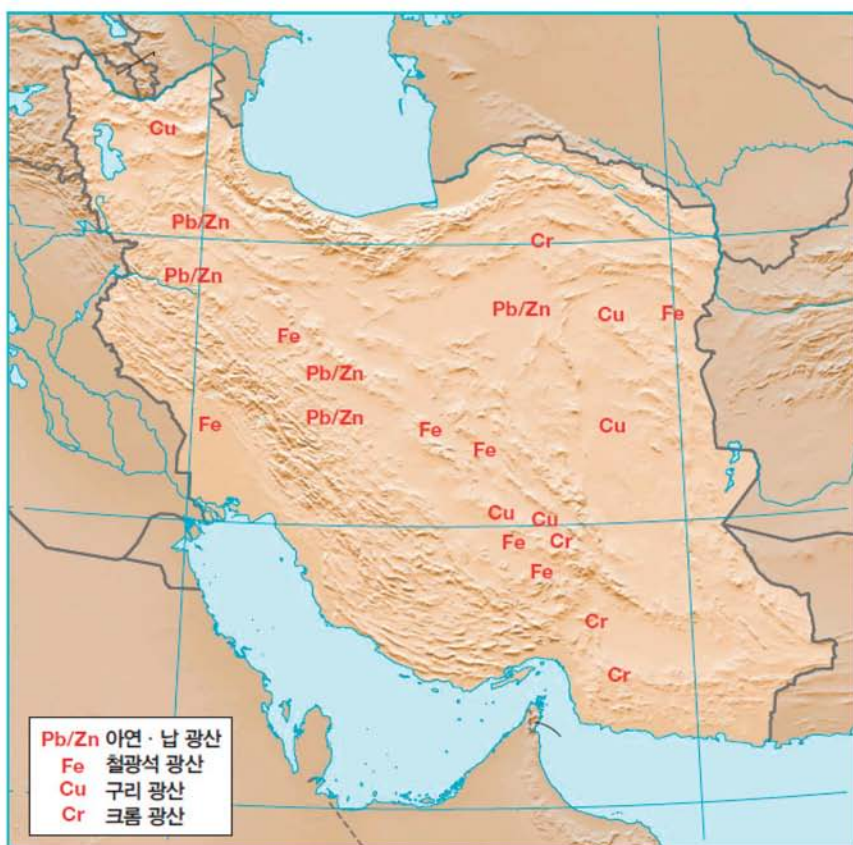
- 이란은 현재까지 약 70종에 달하는 광물의 확인매장량 370억 톤 (세계 광물 확인매장량의 7%) 및 부존가능 추정매장량 570억 톤을 보유하여, 비(非)에너지 광업 부문에서 중동 지역 제1의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미국 내무부 산하 US Geological Survey(USGS)에 의하면, 이란의 주요 광물별 확인매장량 세계 순위는 아연 1위, 구리 9위, 우라늄 10위, 철광석 12위 등임.
  - 세계광업회의(WMC)의 2015년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란의 비에너지 광물(석유, 가스, 석탄 제외) 연간 생산량은 4,800만 톤으로 세계 10위이자 중동 1위이며, 총가치는 79억 달러로 추정되어 광산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비에너지 광업 부문은 그동안 이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투자 유치 우선순위에서 석유·천연가스 개발에 밀려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지 못하였음.



- 2015년 기준 10,500개 이상의 광산이 탐사되었으며, 그중 3,735개 광산이 민간 소유임. 대부분의 광산은 Isfahan, Khorasan, Yazd, Kerman, Azarbayezan 주에 위치하며, 513개 금속광물 광산과 1,535개 비금속광물 광산이 현재 채굴 중임.

&lt;그림 | -1&gt;

이란의 주요 금속광물 분포도



자료: IMIDRO

&lt;표 1-1&gt; 세계 비에너지 광물 생산량 국가별 순위

단위: 천 톤(\*귀금속은 톤)

순위	국가명	철, 철합금	비철금속	귀금속*	산업용광물	총 합계
1	중 국	469,898	32,171	4,098	188,431	734,876
2	호 주	390,838	5,042	2,109	18,996	495,997
3	브 라 질	225,606	1,755	102	18,409	278,637
4	인 도	104,851	2,664	352	38,731	167,912
5	미 국	33,651	4,329	1,287	92,193	130,303
6	러 시 아	56,752	4,807	1,734	29,589	96,472
7	인도네시아	7,135	860	307	1,765	65,415
8	캐 나 다	26,731	4,036	802	31,772	62,540
9	남 아 공	58,439	977	454	3,000	62,417
10	이 란	17,646	659	3	28,768	47,861

자료: World Mining Congress, World Mining Data 2015

&lt;표 1-2&gt; 이란의 철 및 철합금 생산 추이 (2009~13년)

단위: 천 톤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12/'13)	전 세계 점유율
철강	13,515	14,045	14,840	15,635	17,378	11.2%	1.1%(11위)
크롬	118	100	142	192	191	-0.6%	1.4%(9위)
망간	43	45	46	66	70	6.1%	0.4%(15위)
몰리브덴	4	7	6	6	6	0.0%	2.4%(7위)

자료: World Mining Congress, World Mining Data 2015

&lt;표 I -3&gt; 이란의 비철금속 생산 추이 (2009~13년)

단위: 천 톤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12/'13)	전 세계 점유율
보크사이트	323	715	818	898	789	-12.2%	0.3%(17위)
알루미늄	281	303	322	337	299	-11.0%	0.6%(22위)
구리	263	210	259	245	189	-23.1%	1.0%(16위)
아연	115	128	138	138	130	-5.8%	1.0%(16위)
납	27	32	30	40	40	0.7%	0.7%(16위)
안티모니*	n/a	600	600	0	400	..	0.3%(15위)

\* 단위는 톤

자료: World Mining Congress, World Mining Data 2015

&lt;표 I -4&gt; 이란의 귀금속 생산 추이 (2009~13년)

단위: 킬로그램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12/'13)	전 세계 점유율
금	350	350	1,000	2,000	1,656	-17.2%	0.1%(68위)
은	40,000	40,000	40,000	40,000	673	-98.3%	0.0%(58위)

자료: World Mining Congress, World Mining Data 2015

&lt;표 | -5&gt; 이란의 산업용 비금속광물 생산 추이 (2009~13년)

단위: 천 톤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12/'13)	전 세계 점유율
석고	17,700	18,313	18,300	19,000	21,119	11.2%	12.5%(2위)
황	1,570	1,780	1,575	2,000	2,100	5.0%	3.1%(9위)
장석	637	533	577	600	1,313	118.9%	3.9%(6위)
고령토	907	762	762	800	946	18.3%	2.6%(11위)
백토	387	543	545	400	397	-0.7%	2.4%(9위)
중정석	365	269	270	250	300	20.0%	3.2%(8위)
마그네사이트	131	174	173	170	171	0.4%	0.7%(12위)
인산염	75	109	110	110	114	3.3%	0.2%(27위)
활석	66	63	59	70	93	32.8%	1.2%(14위)
형석	71	60	56	70	70	-0.3%	1.0%(11위)
펠라이트	47	19	20	30	55	83.7%	1.9%(6위)
규조토	2.0	3.0	0.0	0.0	9.5	..	0.4%(14위)
붕소	1.0	1.1	1.0	1.0	0.9	-8.6%	0.0%(9위)

자료: World Mining Congress, World Mining Data 2015

&lt;표 | -6&gt; 이란의 석탄 생산 추이 (2009~13년)

단위: 천 톤

품목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12/'13)	전 세계 점유율
코크스용	1,048	984	1,052	940	1,059	12.7%	0.1%(17위)
기관용	104	105	112	104	117	12.5%	0.0%(4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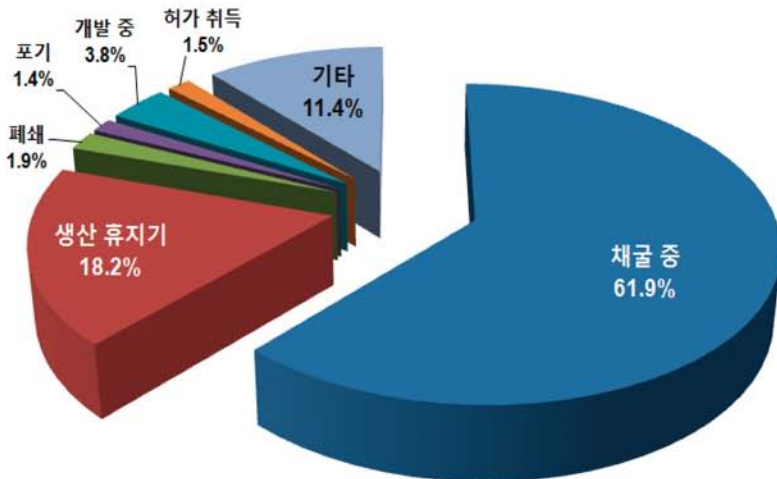
자료: World Mining Congress, World Mining Data 2015

## □ 자본·기술 및 인프라 부족 등 경제제재로 인한 난제 산적

- 이란의 광업 부문 전반은 지주회사 형태의 국영기업인 이란광산 광업개발혁신기구(IMIDRO)와 그 산하의 70여개 자회사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
- 현재 이란의 광업 부문은 여타 산업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자본과 기술의 유입 중단, 인프라 부족 등 경제제재로 인한 난제를 안고 있는 상황임.
- － 이란의 광산 중 현재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체의 61.9%에 그치고 있으며, 18.2%는 생산 휴지 상태, 3.1%는 폐쇄 및 포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 -2> 이란의 현재 상태별 광산 현황

단위: 천 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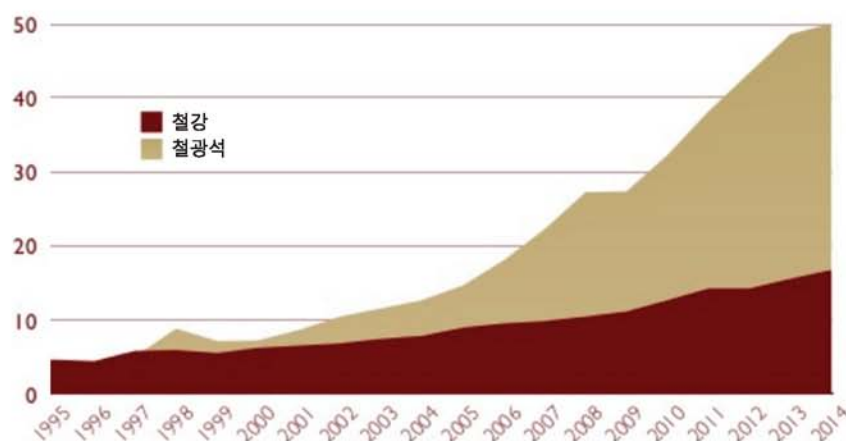
자료: Arjomandi & Arif



## □ 철광석 및 철강: 중동 최대의 생산규모 보유

- 이란의 철광석 추정매장량은 약 27억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0.8%에 해당함. Chadermalu, Golgohar, Sangam 철광은 중동 최대의 철광석 광산임.
- 주요 철광석 생산기업들은 Chadormalu Co., Gol Gohar Co., Iran Central Iron Ore Co. 등이며, 주요 강괴(鋼塊) 생산단지들은 Sangam, Sirjan, Jalalabad, Mishdovan, Iran Central Plateau 등임.
- 세계경기 침체, 특히 이란산 철광석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의 여파로 2014/15회계연도 및 2015/16회계연도 이란의 철광석 생산량은 전년대비 침체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06~15년 간 이란의 철강 생산능력은 연평균 6.3% 성장하여 중동 지역 철강 생산능력의 58%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 -3> 이란의 철광석 및 철강 생산량 추이 (1995~2014년)



자료: IMIDRO

### □ 구리: 전 세계 매장량의 4% 보유

- 이란의 구리 추정매장량은 약 26억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4%에 해당함. 2013년 이란의 구리 생산량은 18.8만 톤으로 추정됨.
- 이란국영구리산업회사(NICICO)는 이란 내 구리 광산의 탐사·채굴, 구리를 원료로 하는 각종 금속제품의 생산 및 국내외 유통·판매는 물론 구리 광산 개발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와 관련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구리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음.

### □ 금: 잠재적 매장량 포함 추정매장량은 약 340톤

- 이란의 금 추정매장량은 약 250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0.5%에 해당함. 2013년 이란의 금 생산량은 약 3톤으로 추정됨.
- West Azarbaijan 주에 소재한 이란 최대의 Zarshouran 금광은 잠재적 추정매장량이 최고 90톤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 아연·납: 잠재력에 비해 개발은 아직 미흡

- 이란의 아연·납피(zinc/lead ore) 매장량은 약 2.2억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를 점유하고 있으며, 약 1,100만 톤의 금속 아연과 약 500만 톤의 금속 납을 함유하고 있음.
- 주요 광산으로는 Yazd 주 Mehdiabad 광산(매장량 7,500만 톤)과 Zanjan 주 Angouran 광산(매장량 1,600만 톤) 등이 대표적임.

- 이란 정부는 석유·천연가스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비에너지 광물에 대해서는 철광석 등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어 아연·납의 개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임.
- 원광에서 추출된 아연·납(zinc/lead concentrate)의 생산능력은 연간 200만 톤 규모이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개발이 미진하여 원료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최근 연간 생산량은 생산능력의 35%인 70만 톤 수준이며, 생산량의 50% 정도가 수출되고 있음.
- 아연과 납 생산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용과 환경문제로 인한 허가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산자들은 내수판매보다 수출을 더 선호함.

#### □ 알루미늄: 세계 22위 수준의 생산량

- 2012년 이란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33.5만 톤으로 세계 22위임. 주요 기업은 이란 알루미늄회사(IRALCO), Almahdi 알루미늄회사(AHAC) 등임.
- 1972년 Arak에 설립된 IRALCO는 연간 생산능력 12만 톤이며, 주요 생산품목은 T-bars, 알루미늄괴, casting alloys(슬라브 등), 빌레트 등임.
- 1990년 Bandar Abbas에 설립된 AHAC은 연간 생산능력이 1단계 11만 톤, 2단계 14.8만 톤임.

## □ 석탄: 매장량에 비해 생산은 부진

- 지질학적 분석에 의한 이란의 석탄 추정매장량은 최대 120억 톤이나, 현재까지 확인된 가채매장량은 7.6억 톤에 불과함.
- 석탄의 주요 매장지역은 Kerman, East Alborz (Semnan), Central Alborz (Savadkouh), Tabas 등임.
- 이란의 석탄 연간 생산능력은 원탄(原炭, raw coal) 300만 톤, 이를 정제한 선탄(選炭, concentrated coal) 150만 톤으로 추정됨.
- 최근 수년간 경제제재에 따른 투자 부진과 시장상황 악화로 인해 선탄의 실제 생산량은 110만 톤에 그치고 있음.

## II. 산업 구조

### □ 이란광산광업개발혁신기구(IMIDRO)는 이란의 광업 부문을 주도하고 있음

○ 2001년 설립된 국영기업인 이란광산광업개발혁신기구(IMIDRO)는 이란의 광산 개발 및 탐사,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시멘트 등의 생산에 종사하는 이란 제1의 광업회사임.

－ IMIDRO는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산하에 7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이란의 광업 부문 전반을 장악하고 있음. 주요 자회사는 다음과 같음 :

- ① 광물의 생산 및 유통 : 이란광물생산·공급회사(IMPASCO)
- ② 철강 생산 : 이란국영철강회사(NISCO), Mobarakeh 철강회사(MSC), Khuzestan 철강회사(KSC), Esfahan 철강회사(ESCO)
- ③ 기타 생산 : Al-Mahdi 알루미늄회사(AHAC), 이란국영구리산업회사(NICICO), Ehdas Sanat 회사(ESC, 시멘트)
- ④ 그 외 분야 : 페르시아만 광업·금속산업 특별지역(PGSEZ), 이란 광물처리조사센터(IMPRC), 이란국제엔지니어링회사(IRITEC)



## □ IMIDRO 산하의 국영기업 및 이란 민간기업들의 시장 장악으로 외국기업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을 전망

- 이란의 광업 부문은 IMIDRO 산하의 국영기업들과 이란 민간기업들 (대부분 각종 연기금이 다량의 지분을 보유하여 사실상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데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철강의 경우, 2014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Mobarakeh 철강회사 46%, Khuzestan 철강회사 23%, Isfahan 철강회사 20% 등으로, IMIDRO의 3개 자회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 Ⅲ. 산업의 최근 동향

#### □ 2025년까지 주요 금속광물 생산량의 4~5배 증대 추진

- 이란의 제6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5~20년)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계획기간 동안 150억~2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이미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IMIDRO는 2025년까지 철강 5,500만 톤, 알루미늄 150만 톤, 구리 80만 톤의 연간 생산량(기존 생산량의 4~5배)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IMIDRO는 동 계획의 달성을 위해 4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어,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필수적임.

#### □ IMIDRO, 경제제재 해제 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

- IMIDRO는 경제제재 해제 후 14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철강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능력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IMIDRO는 Sabzevar, Baft, Shadegan 등 7개 철강 플랜트의 신규 건설(총예산규모 19.2억 달러)을 통해 연간 철강 생산능력 560만 톤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 IMIDRO는 이밖에도 선탄(選炭) 연간 생산능력 105만 톤 증대를 위한 Parvade 4단계 프로젝트 및 Eastern Parvade 프로젝트(총예산규모 2.4억 달러), 알루미늄 연간 생산능력 3.3만 톤 증대를 위한 SALCO 프로젝트(총예산규모 8.8억 달러)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표 III-1> IMIDRO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14개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생산품목	연간 생산능력 (천 톤)	프로젝트 규모 (US\$백만)	외국인 지분율
Sabzevar Steel Complex	철강	800	258	35%
Baft Steel Complex	"	800	245	35%
Shadegan Steel Complex	"	800	276	35%
Neyriz Steel Complex	"	800	273	35%
Mianeh Steel Complex	"	800	282	35%
Ghaenat Steel Complex	"	800	289	35%
Sefid Dasht Steel Complex	"	800	293	35%
Parvarde 4	선탄(選炭)	450	95	35%
Eastern Parvade	"	600	142	35%
Savadkooh	아금용코크스	300	90	35%
South Aluminum(SALCO)	알루미늄괴	330	880	49%
Green Coke Projects	산화전극용 코크스	200	149	35%
Kahnoj Titanium Project	산화티타늄	70	86	35%
Khor o Biabanak	산화마그네슘	25	20	35%

자료: IMIDRO

## □ 계획 추진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 존재

- 신규 광산의 개발 및 채굴은 초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상업적 성공의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위험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기까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어 타 부문에 비해 투자유치에 시간이 걸림.
- 한편 IMIDRO는 경제제재 해제 전까지 미국의 제재대상 명단에 올라 있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Snapback 조항의 발동(이란의 핵협상 위반시 대 이란 경제제재 자동 재개) 위험을 우려하여 IMIDRO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꺼려할 가능성이 있음.
- 대 이란 거래로 인해 미국의 제재를 경험한 바 있는 유럽계 은행들도 이란 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제공에 아직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란의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 IMIDRO의 2015/16회계연도 주요 프로젝트 추진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지연 중

- IMIDRO의 2015/16회계연도 주요 프로젝트 계획은 철광석 생산량 증대, 구리 제련설비 확장 및 알루미늄 생산능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광산 부문에서는 연간 1,560만 톤의 철정광(iron ore concentrate)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확충 및 신규 채굴 등이 추진 중임.

- 구리 부문에서는 연간 10만 톤 이상의 전해동(copper cathode)<sup>30)</sup>과 연간 24만 톤 이상의 동정광(copper concentrate) 생산을 위한 기존 제련설비 확장 및 신규 제련설비 건설 등이 추진 중임.
  - 알루미늄 부문에서는 연간 11만 톤의 알루미늄괴(aluminium ingots) 및 3,700만 톤 이상의 알루미늄 생산을 위한 플랜트 건설 외에도 아프리카 기니(Guinea)의 보크사이트(bauxite, 알루미늄 원광석) 광산 개발을 통한 보크사이트 수입 등이 추진 중임.
- 그러나 상기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경제제재 해제 이전에 추진이 시작된 관계로 자본과 기술의 유입에 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추진은 2016/17회계연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표 III-2> IMIDRO의 2015/16회계연도 주요 프로젝트 계획

1) 광산 전반

광산명	프로젝트 내용	목 표
Zarshouran 금광	생산설비 확충	연간 3톤의 금 생산
Jalal Abad 철광	생산설비 확충	연간 300만 톤의 철정광 생산
Chah Gaz 철광, Mishdovan 철광	철정광 생산시설 건설	연간 260만 톤의 철정광 생산
Gol Ghohar 철광	3단계 채굴 개시	연간 1,000만 톤의 철정광 및 철 펠렛 생산
Parvadeh 4호 탄광	생산설비 확충	연간 90만 톤의 석탄 생산
Choghart 철광	철정광 생산능력 증대 및 품질 개선	연간 생산능력 80만 톤
	펠렛 생산 플랜트 건설	연간 500만 톤의 철 펠렛 생산

30) 전기분해 방식 정련으로 생산되는 순도 99.95% 이상의 구리.



## 2) 구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목 표
Khatoon Abad Copper	기존 제련설비 확장	연간 생산능력 증대 (8만 톤 → 20만 톤)
	제련소 신규 건설	연간 10만 톤의 전해동 생산
Sungun Copper	제련설비 확충	연간 생산능력 20만 톤
Midok leach project	전해동 생산	연간 5,000톤의 전해동 생산
Ali-Abad Yazd Concentrator	플랜트 건설	연간 4만 톤의 동정광 생산
Sarcheshmeh Copper	2단계의 생산설비 확장	연간 20만 톤의 동정광 생산

## 3) 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 포함)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목 표
Masjed Solieman projects	알루미늄괴 생산	연간 11만 톤 생산
Jajarm aluminium	알루미늄 플랜트 건설	연간 3,660만 톤의 알루미늄 생산
IRALCO anode	양극(anode) 플랜트 건설	연간 6.5만 톤의 알루미늄 양극 생산
South Aluminum production plan	알루미늄 플랜트 건설	연간 27.6만 톤의 알루미늄 생산
Persian Gulf Alumina	알루미나(산화알루미늄) 생산설비 설치	연간 생산능력 160만 톤 확충
Guinea bauxite	아프리카 기니(Guinea)의 보크사이트 광산 개발	연간 400만 톤의 보크사이트 생산, 수입

자료: IMIDRO

## IV. 주요 개발계획

### □ 철강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생산설비 확장 및 투자유치 추진

- IMIDRO는 철강의 연간 생산능력을 2015년 2,600만 톤(추정치)에서 2025년까지 5,500만 톤으로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생산설비 확장 및 투자유치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IMIDRO 산하의 Khuzestan 철강회사는 철강의 연간 생산능력을 2015년 37만 톤에서 2017년까지 500만 톤으로, 그리고 2025년까지 1,36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 중임.

### □ 중국 Sinosteel사, 이란의 알루미늄 부문에 투자 계획

- 중국 Sinosteel사는 2016년 3월 IMIDRO와 산화알루미늄분(alumina powder), 알루미늄과 생산 플랜트 및 동 플랜트에의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동 프로젝트의 연간 생산능력 목표는 산화알루미늄분 160만 톤, 알루미늄과 35만 톤, 전력 1,000MW 등임.

- 알루미늄 플랜트는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파이낸싱을 하나의 패키지로 수행하는 EPCF 계약의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나, 발전 플랜트는 BOO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 금 생산량 증대 계획: Zarshouran 금광 2단계 개발

- 이란 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금 생산량을 5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West Azarbaijan 주에 소재한 이란 최대의 Zarshouran 금광은 IMIDRO가 채굴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금광의 개발의 결과는 이란 정부의 생산량 증대 목표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
  - 1995년의 탐사 결과 Zarshouran 금광에는 88톤의 순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0년부터 개발이 본격화되어 2014년 9월 파일럿 생산을 단행하였음.
- IMIDRO는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탐사를 포함한 Zarshouran 금광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2단계 완공시 금 3톤, 은 2.5톤, 수은 1톤의 연간 생산량 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 □ 석탄 생산능력 증대 계획: 생산설비 개선/증대 추진

- IMIDRO는 선탄(選炭) 생산능력을 450만 톤 이상으로 증대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2단계 석탄 생산설비 개선/증설 계획을 추진 중임.

- 동 계획은 Tabas 지역 4개, Kerman 지역 3개, East Alborz 지역 3개 및 Central Alborz 지역 1개 탄광을 포함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연간 생산능력 300만 톤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표 IV-1> IMIDRO의 석탄 생산능력 증대 계획

구분	대상 탄광	목 표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rman 지역 : Khomroud 탄광</li> <li>- Tabas 지역 : Parvadeh 탄광 2·3·4단계, Eastern Parvadeh 탄광</li> </ul>	연간 생산능력 200만 톤 증대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rman 지역 : Hashouni, Pabdana 탄광</li> <li>- Eastern Alborz 지역 : Takht, Western Razmjay, Vatan 탄광</li> <li>- Central Alborz 지역 : Kordabad 탄광</li> </ul>	연간 생산능력 100만 톤 증대

자료: IMIDRO

## V.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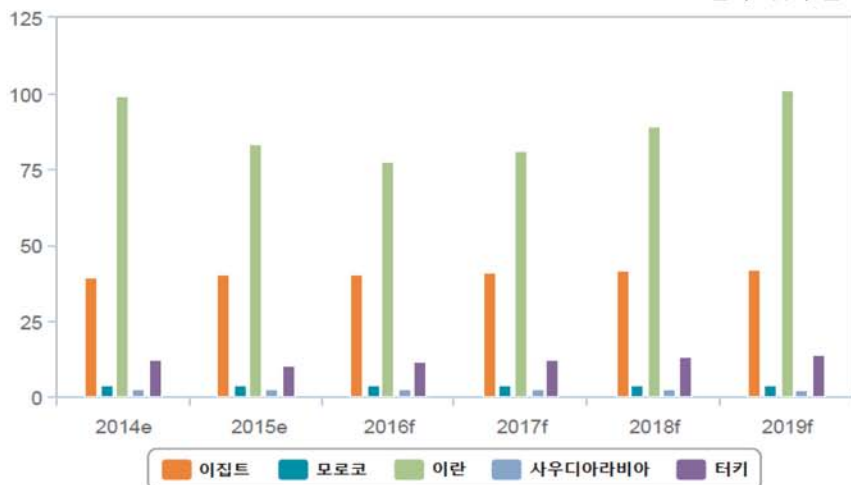
### □ 단기적으로는 저성장, 장기적으로는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고성장 전망

- 이란의 광업 부문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시스템, 경제제재로 인한 인프라 부족,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광물 가격 등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제재기간 동안의 설비투자 부진과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현재 이란의 광업회사들의 대부분은 생산능력의 50~60% 수준의 생산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7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광물의 분포, 세계 광물 확인매장량의 7%에 달하는 확인매장량과 부존가능성 있는 추정매장량 등의 풍부한 잠재력에 힘입어 고성장이 전망됨.
- BMI는 2016년 중동 지역의 광업 부문에 대한 2016년 2분기 보고서에서, 이란의 광업 부문 가치총액이 2016년 184억 달러에서 2020년 21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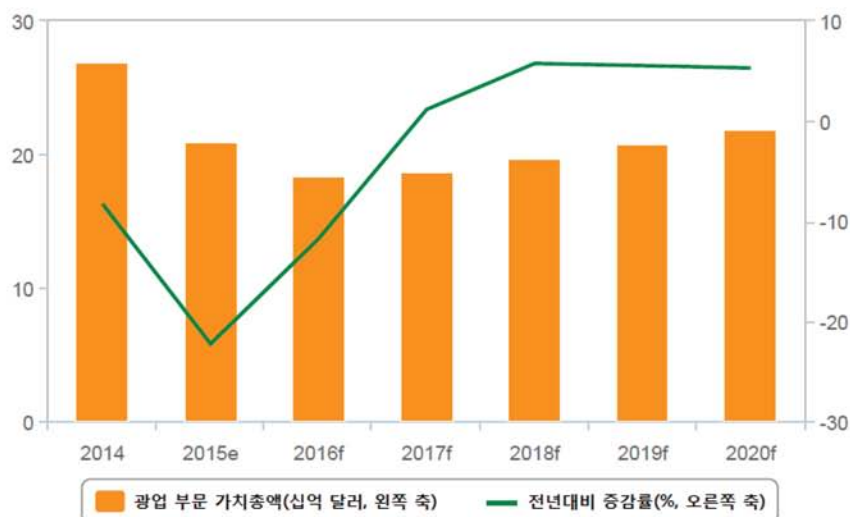
&lt;그림 V-1&gt; 중동 지역의 비석유 광업 부문 가치총액 추정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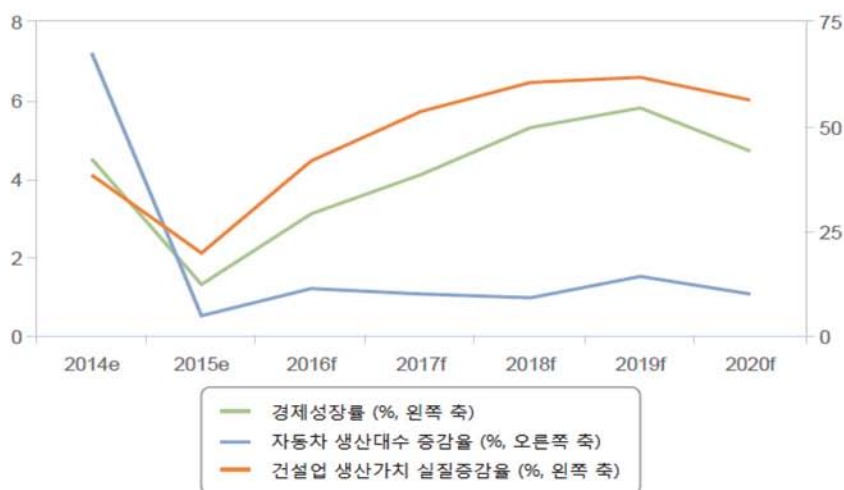
&lt;그림 V-2&gt; 이란의 광업 부문 가치총액 전망



자료: BMI

-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 국내의 건설/인프라,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철강 및 기타 금속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광업 부문의 투자와 생산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V-3> 이란의 광산물(금속제품) 소비 관련 요인 전망 (2014~20년)



자료: BMI

<표 V-1> 전 세계 및 이란의 철광석 생산량 추이와 전망 (2014~18년)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4 <sup>e</sup>	2015 <sup>e</sup>	2016 <sup>f</sup>	2017 <sup>f</sup>	2018 <sup>f</sup>
전 세계	3,220.0	3,136.5	3,063.4	3,074.3	3,103.6
(전년대비 증감률)	(3.5%)	(-2.6%)	(-2.3%)	(0.4%)	(1.0%)
이 란	45.0	45.9	46.8	47.5	48.0
(전년대비 증감률)	(-10.0%)	(2.0%)	(2.0%)	(1.5%)	(1.0%)

자료: USGS, BMI

- 2015년 5월의 Iran Mines & Mining Industries Summit에서 이란의 Mohammadreza Nematzadeh 산업장관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이란 정부가 광업 부문에의 면세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음.
- － 그러나 저유가 지속과 경제제재 여파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이란 정부가 광업 부문에 면세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됨.

## VI.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 광산 개발은 IMIDRO와 직접 협상하는 방식을 선택

- 현재 이란 내 채굴 중인 광산의 약 70%가 민간에 불하된 상태로 파악됨. 이들 광산의 개발에 참여하려면 민간업자들과 직접 거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상충, 의사소통의 한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지에서의 광산 투자경험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로서는 민간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이란 정부 또는 국영기업과의 거래보다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광산 개발은 이란의 광물 분야 총괄 기업인 IMIDRO와 직접 협상하여, 우리나라의 일정 수요가 유지되는 정부 관리 전략 광물업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IMIDRO가 미국의 제재대상에 장기간 올라 있었다는 이유로 유럽 기업들이 Snapback 조항의 발동 위험을 우려하여 IMIDRO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꺼려할 가능성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 개발된 광물의 현지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패키지형 투자 고려

- 광업 투자는 단순히 광물의 채굴에 그치지 않고, 채굴된 광물을 제련·가공하여 이란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방향으로의 투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현지 금속 플랜트 설립 및 운영 프로젝트의 일부로 광산 개발에 투자하는 패키지형 투자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 철강의 경우 건설, 자동차, 기계류,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 널리 사용되므로 이란 내수시장에서도 충분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란의 주요 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수출입은행의 대 이란 산업별 금융지원 방안

KEXIM's Plan of Financial Support for  
Korean Companies to Iranian Market  
by Industrial Sectors



## 수출입은행의 대 이란 산업별 금융지원 방안

### 1. 인프라, 발전, 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 1) F/A를 활용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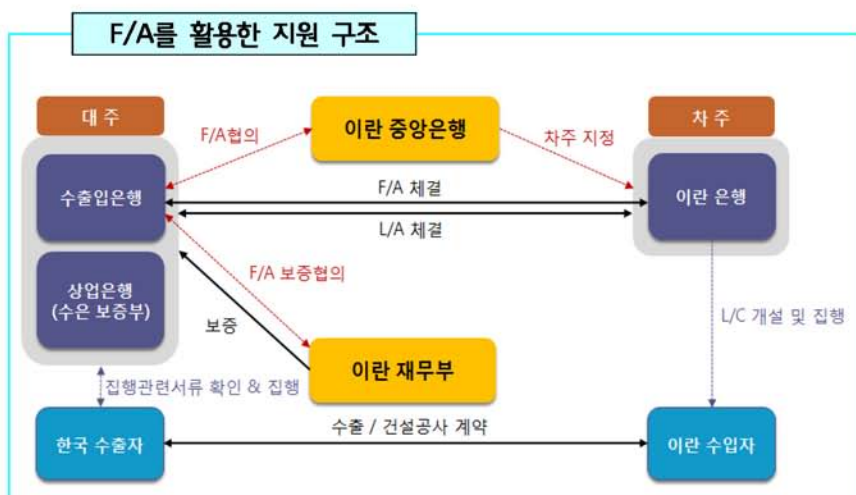
- ☐ 인프라, 발전, 병원 등 정부 주도 추진사업은 포괄적 업무협약 (Framework Agreement, F/A)\*을 기반으로 추진함.

\* 주요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는 기본대출약정.

- F/A에 공통 금융조건, 제재보호 조항, 채권보전 등의 주요 핵심 사항을 명시하여 개별 계약건의 협의기간 단축 및 우리 기업의 신속한 수주지원이 가능함.
- 이란 중앙은행이 선정하는 이란의 상업은행이 차주의 역할을 담당하며, 차주와 이란 재무부, 이란 중앙은행이 계약당사자임.
  - － 이란 재무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이란 중앙은행은 차주 선정과 의견 조율 등을 담당하게 됨.

## F/A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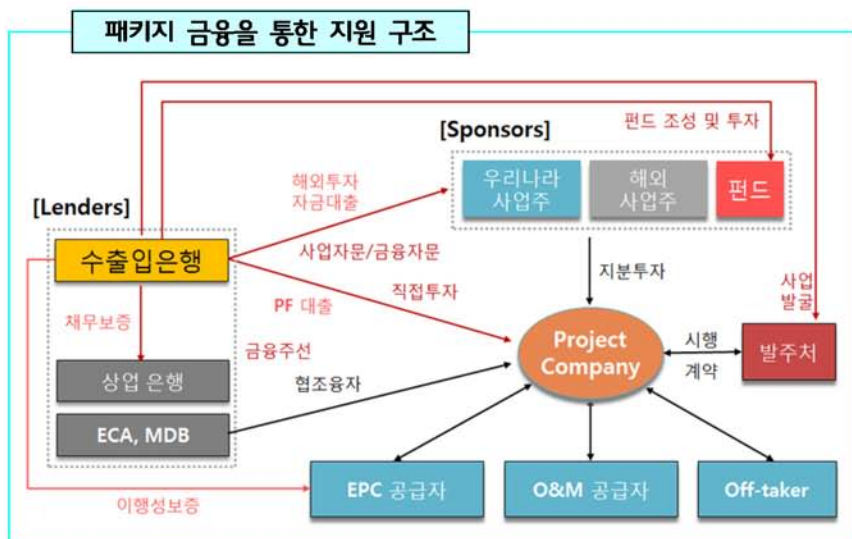
차 주	이란 상업은행(이란 중앙은행 선정 예정)
계 약 당 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 상업은행(차주)</li> <li>• 이란 재무부(지급보증 제공)</li> <li>• 이란 중앙은행(상업은행 선정, 통제, 의견조율 등)</li> </ul>
약 정 금 액	50억 유로
지원대상사업	인프라, 발전, 병원 등 포괄적 분야에 적용
채 권 보 전	이란 재무부 지급보증



## 2) 패키지 금융을 통한 지원

- 상업성이 검증된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 「대출+채무보증+이행성 보증+지분투자」를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금융을 지원함.
- 우리 기업의 對이란 사업 수주 및 금융창구 일원화를 통한 금융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코리안 패키지를 구성함.

- 당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가 참여하는 금융 부문 Korean Fleet를 구성, 수주 초기 단계부터 참여·지원함.



### 3) 이행성 보증/제작자금 지원

- 우리 기업의 EPC 수주 및 수출기자재 납품거래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 앞 이행성보증 및 수출목적물 제작을 위한 제작금융을 제공함.



## 2. 자동차, 철강 등 단기 소규모 자본재 수출

- (전대금융, 포페이팅) 대 이란 주요 수출상품(자동차<sup>\*</sup>, 철강 등)의 경우 현지 우량 상업은행 신용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전대금융 및 포페이팅을 적극 활용함.<sup>\*\*</sup>

\* CKD(반제품 수출) 방식에 의한 자동차 부품 수출 수요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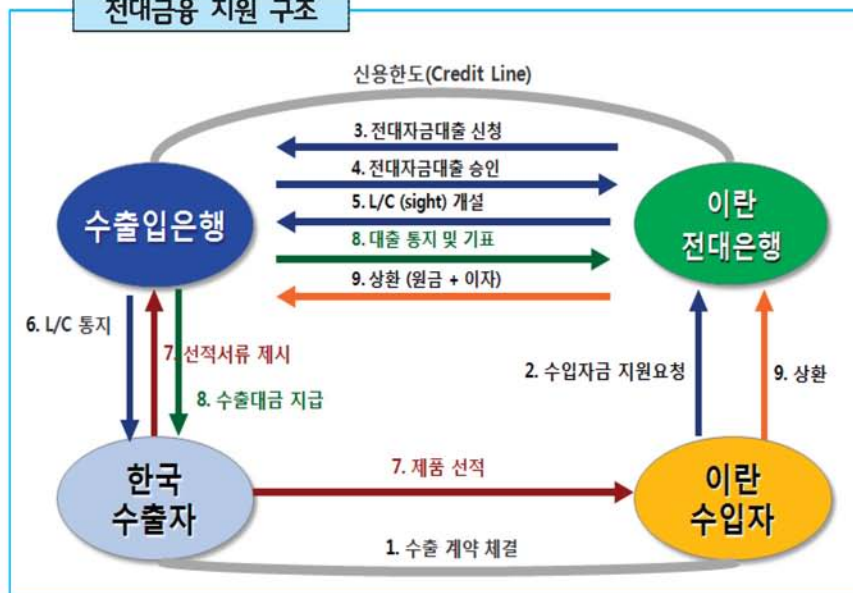
\*\* 2005년 이후 자동차 부문 지원액 중 전대금융이 52%, 철강 부문 지원액 중 포페이팅이 81%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4월 현재 이란 상업은행과 전대금융 한도 신규설정(2억 달러)\*을 추진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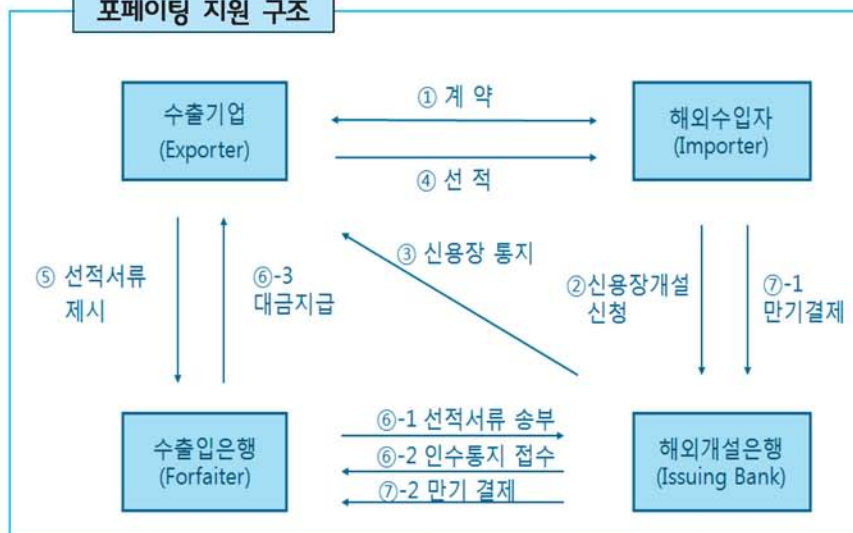
\* Bank Parsian, Bank Pasargad 등 2개 민간 상업은행

- 포페이팅 지원을 재개하되 2차 포페이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非달러화 결제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시 1차 포페이팅을 시행함.

## 전대금융 지원 구조



## 포페이팅 지원 구조



### 3. 직접투자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 외국인투자법 등 제도 미비, 경직적 고용환경, 모호한 세제 등이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

\* 현지 사무소에도 법인세 부과, 이중과세방지협정(2006년)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 적용, 현지인 고용 의무, 해고의 어려움 등

-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및 환경 개선으로 현지 진출 수요 증가 시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 합작기업 설립 등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및 우리 기업 현지법인과 거래하는 현지 판매법인 앞 간접대출 등 지원

- 이란 내 인지도가 높은 업종들(자동차, 정보통신, IT기기 등)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직접투자 추진 필요

